

혐한(嫌韓)시위를 통해 보는 재일코리안: 카운터(counter)활동을 중심으로

김 옹 기*

kimwoongki@gmail.com

I. 서론

2013년은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냉랭해진 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관광객의 수는 전년 대비 23.6% 감소¹⁾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한 한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41.3%가 줄어들었다.²⁾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엔저라는 경제적 요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독도문제 등으로 인한 외교적 요인에도 기인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³⁾ 한일관계의 갈등과 긴장은 한일수교 협상 과정에서부터 1980년대 교과서문제 등 그동안 여러 번 있어왔다. 그러나 한국 대중과는 달리 일본 대중들은 대체로 무관심해 왔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양상이 다르다. 혐한의 확산이 주 무대였던 인터넷 공간을 넘어 이제 가두시위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의 한일월드컵 전후부터 ‘넷우익(ネット右翼)’으로 불리는 계층에 의해 혐한(嫌韓) 언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속에서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會, 이하 재특회)⁴⁾과 같은 시민운동 형태를 띤 단체가 생겨났다. 이들은 기존 우익들과는 달리 항의방문, 서명, 모금 등 ‘행동하는 보수(行動する保守)’⁵⁾의 운동 행태를 학습함으로써 급속도로 지지자를 늘리고 있다. 재특회는 이제 주변세력들과 연대하여 거리로 나와 “조센징을 쳐죽여라(朝鮮人をぶっ殺せ)” 등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를 서슴지 않고 내뿜는다. 이 같은 위협적 구호를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확성기로 외쳐대는 시위행진을 일본 각지에서 벌일 정도로 세력을 키운 것이다.

일본에서 혐한의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현대용어의 기초지식(現代用語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국제경영 일본전공 조교수

1) 이성태, 「엔화 약세의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 『웹징 문화관광』, 2013년 4월호,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16&menu_seq=4&board_seq=1 (2013년 11월 18일 검색)

2) 『매일경제신문』, 2013년 11월 7일.

3) 한 예로 서현, 「방일관광객 감소 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의 여행 공급자 관점에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4호, 2013년 5월, 215-216쪽.

4) 재특회는 2006년 1월에 약 130명의 회원으로 발족했으며, 2013년 12월 4일 현재 14,000명 이상으로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운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들의 체류자격인 특별영주권, 통명(일본식 이름) 사용, 생활보호 수혜 등은 ‘특권(재일특권)’이며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권’ 수혜를 ‘반일적’ 행위로 여겨 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재특회는 또한, 재일코리안 외 외국인정책, 역사인식문제, 일본 핵무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반일적’이라고 간주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 <http://www.zaitokukai.info> (2013년 12월 8일 검색)

5) 재특회가 스스로를 ‘행동하는 보수(行動する保守)’를 자칭하는 것은 기존 우익을 “말 뿐인 우익”으로 비판하며 자신들과 구별 짓기 때문이다. 재특회를 추적한 저널리스트 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이 과격화된 것은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본명 다카다 마코토(高田誠))가 주권회복을 지향하는 모임(主權回復を目指す会) 대표 니시무라 슈헤이(西村修平)의 활동방식에 영향을 받은 후부터라고 한다. 安田浩一, 『ネットと愛國』, (東京: 講談社, 2012), 25頁.

の基礎知識)』이 선정한 「2013년 일본 신어·유행어대상(日本新語·流行語大賞)」⁶⁾에서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가 탑10에 들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한류라는 긍정적 영향에 의해 한국의 존재가 일본사회 깊숙이까지 인식된 만큼 그 부정적 파장 또한 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한편, 혐한시위를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2013년 초부터 이에 맞서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레이시스트 시바키대(レイシストをしばき隊)'로 대표되는 카운터세력은 도쿄에서는 일본인이, 오사카에서는 재일코리안 중심이라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시민운동 성격의 단체가 생겨나는 등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초까지만 해도 혐한시위 보도에 냉담했던 언론들도 본격적인 보도를 시작했다. 누가 어떠한 경위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이다.

'헤이트스피치'의 표적이란 국가로서의 남북한과 일본사회 내 피차별 계층인 민족으로서의 재일코리안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재일코리안의 지위는 국적, 이민시기, 정체성을 막론하고 모조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혐한시위로 인해 과연 재일코리안사회는 어떠한 충격을 받았으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본고의 두 번째 목적이다.

크령다면 이들의 모국인 대한민국과 민족단체 등은 유효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그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까? 이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제인과 동시에 재일코리안 다수가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민보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일코리안사회에 대해 모국인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본고의 세 번째 목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당일 구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혐한의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현대용어의 기초지식(現代用語の基礎知識)』이 선정한 「2013년 일본 신어·유행어대상(日本新語·流行語大賞)」⁷⁾에서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가 탑10에 들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한류라는 긍정적 영향에 의해 한국의 존재가 일본사회 깊숙이까지 인식된 만큼 그 부정적 파장 또한 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한편, 혐한시위를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2013년 초부터 이에 맞서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레이시스트 시바키대(レイシストをしばき隊)'로 대표되는 카운터세력은 도쿄에서는 일본인이, 오사카에서는 재일코리안 중심이라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시민운동 성격의 단체가 생겨나는 등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초까지만 해도 혐한시위 보도에 냉담했던 언론들도 본격적인 보도를 시작했다. 누가 어떠한 경위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이다.

6) 198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12월 1일에 『현대용어의 기초지식(現代用語の基礎知識)』의 설문에 의해 후보를 선정한 후, 신어·유행어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상위 10개와 연간대상을 선정한다. '헤이트스피치'는 2013년도 10위에 들었다. 「日 유행어 톱10에 혐한시위 지칭 '헤이트스피치」, 『연합뉴스』, 2013년 12월 3일. (2013년 12월 3일 검색)

7) 198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12월 1일에 『현대용어의 기초지식(現代用語の基礎知識)』의 설문에 의해 후보를 선정한 후, 신어·유행어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상위 10개와 연간대상을 선정한다. '헤이트스피치'는 2013년도 10위에 들었다. 「日 유행어 톱10에 혐한시위 지칭 '헤이트스피치」, 『연합뉴스』, 2013년 12월 3일. (2013년 12월 3일 검색)

‘헤이트스피치’의 표적이란 국가로서의 남북한과 일본사회 내 피차별 계층인 민족으로서의 재일코리안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재일코리안의 지위는 국적, 이민시기, 정체성을 막론하고 모조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험한시위로 인해 과연 재일코리안사회는 어떠한 충격을 받았으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본고의 두 번째 목적이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문헌과 인터넷상의 글 그리고 필자가 실시한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에 대한 내용분석이 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 재특회를 비롯한 행동하는 보수의 험한 행동에 맞서는 카운터세력의 구성과 활동내용 그리고 논리를 개괄한 다음, III장에서는 험한시위로 인한 재일코리안사회를 충격과 변용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한국정부와 민족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재일코리안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II. 험한시위의 등장

1. 재특회와 험한시위까지의 경과

재특회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재이유 자체가 재일코리안을 공격하는 데에 있다.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본명 다카다 마코토)는 한일관계와 재일코리안 문제의 네티즌 논객으로 중앙일보 번역게시판이나 네이버 게시판 등에서 활동했다.⁸⁾ 과격한 가두시위가 본격화된 것은 재특회 결성 후인 2008년부터이며, 조총련, 츠시마, 교토 우토로,⁹⁾ 북한과 총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선대학교 등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을 막론한 ‘조센’이 주를 이루었으나 반천련(反天聯)과 같은 천황제를 반대하는 단체도 대상이 되었다.

2007년 초 설립 당시 회원수 500명 규모였던 재특회가 확장된 계기를 마련한 첫 번째 계기는 일본에 불법체류 중이던 필리핀인 가족에 대한 재류특별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2009년 4월에 반대시위를 벌였던 일이다. 당사자인 중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벌인 시위는 유튜브(youtube) 등 동영상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후 재특회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매월 평균 267명의 회원을 획득했으며, 이는 사건 전과 비교하여 2배에 해당된다.¹⁰⁾

두 번째 계기는 2009년 12월에 재특회 관서지역 회원들이 교토조선제1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벌인 실력행사와 가두시위다. 운동장이 없는 이 초등학교는 그동안 맞은편에 있는 공원

8) 櫻井誠, 「忘れられないある韓國人との出会い【思考するからこそ人間である】」、櫻井誠ブログ『不思議の國の韓國』、日時未詳。

<http://web.archive.org/web/20080104005712/http://members.at.infoseek.co.jp/konrot/koramu14.htm> (2013년 12월 2일 검색, 출처는 아카이브 사이트) 원 글은 2010년 초에 작성된 글인 것으로 보인다.

9) 교토 우지시(京都府宇治市) 소재.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노동자들의 옛 숙소터이다. 해방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오갈 곳이 없는 주민들의 불법점거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1998년 소유자인 부동산기업이 철거를 요구하며 제소했다. 해방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오갈 곳이 없는 주민들의 불법점거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1998년 소유자인 부동산기업이 철거를 요구하며 제소했다. 주민들은 한국 여론에 호소했고 정부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30억 원의 토지매입대금 지원을 결정했다. 『民團新聞』, 2007년 10월 24일.

10) 樋口直人, 「排外主義運動のマイクロ動員過程—なぜ在特会は動員に成功したのか—」、『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2012、2頁。

을 사용해왔으며, 교토시 당국 또한 이를 묵인해 왔다. 재특회는 이를 불법점거라며 공원 내에 있던 스피커 등을 철거하며 정문 앞에서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헤이트스피치¹¹⁾를 형성기로 외쳐대고 그 상황 역시 동영상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 또한 재특회의 회원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2010년 9월에 관련자들이 형사 기소된 이후부터 회원수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¹²⁾

세 번째 계기는 2011년 8월의 일본 후지TV에 대한 항의시위다. 한 일본배우가 후지TV의 프로그램 편성이 한류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 글을 자신의 트위터(Twitter)에 올린 것을 계기로 그동안 2ch 등 게시판사이트에서 높았던 반한류 여론이 확산되었고 8월 21일의 시위에는 8,000명 정도¹³⁾가 참가했다. 재특회는 이때 주최자가 아니었으나,¹⁴⁾ 같은 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일본사회에서 혐한의 저변이 재특회와 같은 일부 활동가에 그치지 않고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2. 신오쿠보·츠루하시 혐한시위

오늘날 혐한시위는 위에서 논한 일련의 반(反)한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주무대는 신정주자 제일코리안 집주지역인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와 구정주자자 집주지역인 오사카 츠루하시(鶴橋)다. 그 외 지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매주 주말만 되면 일본 어딘가에서 혐한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 시작은 2012년 6월 24일 신오쿠보에서 벌어진 혐한시위이었으며, 헤이트스피치를 형성기로 외쳐대며 평범한 사람들이 행진한다는 오늘날 혐한시위의 유형이 이때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¹⁶⁾ 혐한시위의 관심이 한층 고조된 계기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한 독도상륙이었다. 이후 8월 25일 사쿠라이를 비롯한 행동하는 보수 인사들이 발기인이 되어 신오쿠보에서 대규모 혐한시위¹⁷⁾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신오쿠보에서만 2012년 말까

11)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을 납치한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 이런 건 학교가 아니다,” “북조선 스파이양성기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버려라,” “전쟁중 남자들이 없었을 때 여자들을 강간하고 학살해서 빼앗은 곳이 이 땅,” “일본에서 나가라. 뭐가 애들이냐. 이것들은 간첩 자식들이잖아,” “조센 야쿠자,”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서 약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京都地方裁判所平成22年(わ)第1257号、平成22年(わ)第1641号 平成23(2011)年4月21日第2刑事部判決. 관련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7u3Nr8xyfkk> (2013년 12월 1일 검색)

12) 樋口直人, 『排外主義運動のマイクロ動員過程—なぜ在特会は動員に成功したのか—』, 『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 2012, 3頁.

13) 참가자수는 경찰발표로 3,500명, 공식발표로 6,000명이었으나, 현장 기자는 8,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デモ速報】8.21フジテレビ韓流ゴリ押し・偏向報道抗議デモ 現地レポート速報【公式発表6000人】」, 『ガジェット通信』, (2011년 8월 11일) <http://getnews.jp/archives/136715> (2013년 12월 1일 검색)

14) 주최는 8·21후지TV항의데모실행위원회(8·21フジテレビ抗議デモ実行委員会)라는 일회성 조직이었으며,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됐던 것이 특징이었다. 동 위원회 대표는 이 시위를 계기로 보수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가 “시위를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기에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http://d.hatena.ne.jp/t1625jq/20110819/1313709133> (2013년 12월 1일 검색)

15) 니코니코동화(ニコニコ動画)와 USTREAM 등 동영상사이트의 시청자수를 최소 30만명에 달했다는 점 또한 혐한의 잠재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ガジェット通信』, 앞의 기사.

16) 주최는 행동하는 보수 단체 중 하나인 배해사(排害社<시위 다음 날에 해산>)의 가네토모(金友隆幸)이었으며, 사쿠라이도 참가했던 것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RPZqy3lhc7o> (2013년 12월 1일 검색)

17) 시위 명칭은 ‘한국정벌국민대행진(*`ㄷ)ノ!!!’이며, 발기인으로는 사쿠라이 외에 가네토모, 세토

지 4회, 2013년 11월 말 현재 최소 10회의 혐한시위가 벌어지고 있다.¹⁸⁾

신오쿠보 혐한시위의 충격이란 네티즌들로부터 쏟아져 나온 관심과 지지보다는 그 이유다. 해방 후 일본사회에서 금기시되어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을 공공장소에서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종의 해방감을 이들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이 같은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처음 봤어! 한국을 진심으로 싫다고 표명하고 된다는 거야. 기쁘다. 차별하지 말라, 평화가 중요하다며 계속 사로 잡혀 있었으니까 말이다. 이제 속내를 말해도 괜찮은 거야. 나는 히로시마에 사는데 부럽다.¹⁹⁾

혐한시위의 또 하나의 특징이란 시위가 끝난 후에 벌어지는 ‘산보(お散歩)’로 불리는 뉴커머 제일코리아인 상점에 대한 폄하와 파괴행위 그리고 손님에 대해 “너는 제일(코리아) 편이냐?” 등의 비방이다.²⁰⁾ 확인되는 한, ‘산보’는 8월 25일 신오쿠보 혐한시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신오쿠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²¹⁾

Ⅲ. 카운터(counter)활동의 탄생과 초기 활동경위

1. 카운터세력의 등장

일본에서 시위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의 신고행위에 속한다. 혐한시위가 주최자에 의한 경찰 신고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산보’는 무허가 즉 불법시위가 된다. 그러나 당초 네티즌 외에 그리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음으로 인해 경찰당국은 당초 이를 묵과했다. 혐한시위 참가자들은 이 틈을 타 ‘산보’를 강행했던 것이다. 이 같은 추세를 막고자 나선 것이 카운터(counter)세력이다.

카운터세력이 등장한 계기는 2013년 1월 12일 혐한시위에 대해 중·고등학생이 중심인 어린 K-Pop팬(kポペン)들이 사쿠라이를 향해 트위터로 대거 비판에 나선 일이다. 이 사건은 제일코리아인 라이터 이신혜(李信惠)에 의해 기사²²⁾로 소개됨에 따라 혐한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한 K-Pop 팬은 다음과 같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죽어라』든가 『바퀴벌레』라든가 패거리를 만들어 외쳐대 사람의 마음을 침해하는 일을 『권리』라며 대단하게 주장해봤자 바보 같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의 『권

(せと弘幸, 外国人犯罪追放運動 고문), 깃카와(菊川あけみ, 日侵会 회장) 등 행동하는 우익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18) 재특회 홈페이지 <http://www.zaitokukai.info> (2013년 11월 30일 검색)

19) <http://desktop2ch.tv/ms/1340573889> (2013년 11월 28일 검색)

20) 야스다(安田浩一)는 신오쿠보와 츠루하시에서 멈춘 것은 사실이기도 하나, 여타 지역에서는 ‘산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在特会らの在日韓国・朝鮮人への嫌韓デモに『表現の自由』はない、根絶へ新法で規制を」、『毎日新聞』、2013년 11월 3일. 후술하겠지만 카운터세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란 ‘산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21) 위의 기사.

22) 李信惠, 「差別はネットの娯楽なのか(9)——新大久保で反韓デモに遭遇した若者たち「日本人として恥ずかしい」」、『ガジェット通信』、(2013년 1월 14일) <http://getnews.jp/archives/283762> (2013년 12월 1일 검색)

리』를 『침해할 권리』 따위는 없단 말이야.²³⁾

K-Pop 팬들에 의한 혐한시위 반대 표명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며, 혐한시위 측이 압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카운터세력 결집 기운이 확산되었고 2월 9일 신오쿠보 혐한시위 때부터 카운터세력의 활동이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카운터세력은 음악프로듀서이자 반원자력 활동가인 노마(野間易通)가 이끈 ‘레이시스트 시바키대(レイシストしばき隊)’이었고 이들은 최초로 ‘산보’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²⁴⁾ 이들의 수법이란 혐한시위자들에게 맞불로 험담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 있으면서도 방관으로 일관했던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시바키대에 이어 2월 17일 신오쿠보 혐한시위 때부터 등장한 것이 플랜카드대(プラカード隊)이었다. 사회인대학생인 기노(木野トシキ)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참여를 호소했고 3-40 명이 모여들었다. 이에 당황한 시위자들은 ‘친하게 지내요(仲良くしようぜ)’ 등의 플랜카드를 든 사람들을 향해 “한국인을 처죽여라!” 등의 욕소리를 퍼부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카운터세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킨 노부카츠(金展克)는 “부정 당하는 데에 대한 단순한 반발,” “상상 밖의 인원이 모여든 데에 대한 당황” 등의 해석을 제시했다.²⁵⁾ 요컨대 그동안 인터넷공간에 갇혀, 비판을 봉쇄하며 살 수 있었던 시위자들이 현실 세계에 나오자 상상을 넘는 직접적 비판을 받고 당황했다는 것이다.

시바키대와 플랜카드대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창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 조직적 동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모여든 결과적 집합체라는 점이다. ²⁶⁾ 이에 따라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행동의 목적을 헤이트스피치 반대에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익 인사까지 포함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셋째, 피차별자인 재일코리안에 의한 저항적 운동이 아니라 일본인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⁷⁾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마이너리티문제로 왜소화시키지 않고 일본사회 총체의 문제로 인식케 함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카운터운동의 다변화

위에서 언급한 혐한시위에 대한 직접적 저항이 본격화되자 일반시민은 물론 일본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도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2013년 3월 14일 민주당 아리타(有田芳生)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참의원에서 ‘배외·인종모멸데모에 항의하는 국회집회(排外・人種侮蔑デモに抗議する國會集會)’를 열어 25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²⁸⁾ 이 집회는 혐한시위 측의 주장에 대해 “살인교사”나 다름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질 선동”이라고 규탄했다.²⁹⁾ 이 집회가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프랑스 등 해외언론의

23) <http://togetter.com/li/437996?page=2> (2013년 12월 1일 검색)

24) <http://www.youtube.com/watch?v=tOEAECDDLxQ> (2013년 12월 1일 검색)

25) 金展克, 「いま大久保で起きていること」、KEY東京支部主催<レイシズムに対抗する：いま大久保で起きていること～ヘイトスピーチの歴史と現状から～>、新宿NPO協同センター、(2013년 7월 28일開催)。

26) 위의 글.

27) 위의 글.

28) 한편, 집회 주최 측이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총 717명 중 46명만이 응답했다는 사실을 통해 정치권의 관심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ヘイトスピーチデモ、国会議員へのアンケート結果公表」、『TBS Newsi』、(2013년 6월 20일)。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5월 7일 제2회 집회가 개최되었고 이 행사는 그동안의 풀뿌리(grassroots) 수준에 머물고 있던 헤이트스피치에 규제 논의가 공론화될 계기가 되었고³⁰⁾ 정치권의 관심 또한 고조되었다. 아베(安倍晋三) 수상은 같은 날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란 이른바 증오를 선동하는 인종적 혹은 성차에 의거한 그런 비방증상의 종류”이며, “현재 일부 국가, 민족을 배제하고자 하는 언동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발언³¹⁾하기에 이르렀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헤이트스피치에 용화적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아베내각으로부터 혐한시위 측과 선을 긋겠다는 의사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당국의 미온적 태도³²⁾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동안 아베정권 지지³³⁾를 전폭적으로 표명해온 재특회에게 충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적인 움직임이다. 재일코리안 킨 노부카즈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 대학교수 등과의 논의 끝에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는 서명활동을 3월 22일부터 시작했고³⁴⁾ 4월 후인 3월 26일까지 5,978명의 서명을 모아 도로사용허가를 관장하는 도쿄공안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6월 16일에도 12,512명의 서명을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명운동이 5월 31일 아침 NHK뉴스에서 9분 동안 방영됨으로써 헤이트스피치문제가 공중파에서 소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³⁵⁾ 당사자인 재일코리안 카운터세력 가운데 최초로 언론에 노출된 것은 이때의 킨이 처음이었다.

서명운동은 법조인에 의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3월 29일 12명의 변호사들이 도쿄변호사회에 대해 인권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이 신청서에서는 “외국인들이 배척운동을 방치할 경우, 과거 유럽의 사례를 들어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방화 등 중대범죄를 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³⁶⁾ 또한,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 옹호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언동은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³⁷⁾ 이 같은 강한 우려 표명은 법무성 인권옹호국장이 국회에서 밝힌 “표

29) 終會宣言宣言 「私たちはあらゆる排外主義と人種侮蔑行為に抗議する」、<排外・人種侮蔑デモに抗議する國會集會>、参議院議員会館講堂、(2013年3月14日開催)。

30) 규제 논의 공론화는 초청자 중에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전문가(師岡康子)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1) 国会議事録、『第183回参議院予算委員会第14號』、(平成25(2013)年05月7日)。

32) 5월 9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다니가키 법무대신은 헤이트스피치 대응에 대해 “법무대신으로서 는 입이 무거워진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해, 법무, 경찰, 외무당국 관련자들에 의한 소극적 발언이 잇따랐다. 国会議事録、『第183回参議院法務委員会第5號』、(平成25(2013)年05月9日)。

33)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한 직후인 2012년 12월25, 26일에 벌어진 시위 주제는 ‘항의활동. 차기정권으로 여겨지는 아베정권에의 기대(抗議活動. 次期政権と思われる安倍政権への期待)’이었다. <http://calendar.zaitokukai.info/skantou/scheduler.cgi?mode=view&no=130> (2013년 12월 1일 검색)

34) 서명활동은 온라인 서명사이트(서명 명칭: 헤이트스피치·데모의 배제를 지향하며, 신오쿠보에서<ヘイトスピーチ・デモの排除を目指して、新大久保から>와 현장 오프라인 서명으로 실시되었다. http://www.change.org/ja/%E3%82%AD%E3%83%A3%E3%83%B3%E3%83%9A%E3%83%BC%E3%83%B3/%E3%83%98%E3%82%A4%E3%83%88%E3%82%B9%E3%83%94%E3%83%BC%E3%83%81-%E3%83%87%E3%83%A2%E3%81%AE%E6%8E%92%E9%99%A4%E3%82%92%E7%9B%AE%E6%8C%87%E3%81%97%E3%81%A6-%E6%96%B0%E5%A4%A7%E4%B9%85%E4%BF%9D%E3%81%8B%E3%82%89?utm_campaign=twitter_link_action_box&utm_source=share_petition&utm_content=buffer49bb3&utm_medium=twitter (2013년 11월 30일 검색)

35) 『“ヘイトスピーチ”日韓友好の街で何が・・・』、『特集まるごと』、<NHK ONLINE>、2013年5月31日。 <http://www.nhk.or.jp/ohayou/marugoto/2013/05/0531.html> (2013년 11월 28일 검색)

36) 宇都宮健児等12名、『人權救済申立書』、(2013年3月29日)。

37) 宇都宮健児等12名、『声明書』、(2013年3月29日)。

현의 자유'와의 관련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법무당국의 인식³⁸⁾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자리에서 외무당국자 또한, 인권차별철폐조약과 관련된 답변에서 "제4조(a), (b)에 대해 일본은 유보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³⁹⁾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당국자들이 '표현이 자유'를 내세워 규제 논의를 전전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며, 둘째, 현장을 아는 변호사들은 혐한시위의 수위가 이미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외국인의 생명까지 위협에 처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활동들의 영향으로 2013년 6월 30일 신오쿠보 혐한시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위대가 신오쿠보 거리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개입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카운터세력이 혐한시위대의 집합지 주변 도로를 봉쇄해 시위에 나서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게 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변호사 150명이 나서서 재특회 회원을 폭력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수단도 가동되었다. 이 같이 혐한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법적수단이 동원됨에 따라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⁴⁰⁾

IV. 카운터(counter)활동의 새로운 전개

1. 카운터세력에 의한 퍼레이드

2013년 7월과 9월에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카운터 측에 의한 퍼레이드가 성사되었다. 이는 카운터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거리에서 호소했다는 점에서 카운터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먼저 움직인 것은 오사카이었다. 2013년 2월에 한 여중생이 학생기로 "츠루하시대학살을 실행하겠다"⁴¹⁾고 대낮에 중심가에서 외쳐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사카 혐한시위의 주무대는 구정주자 집주지역인 츠루하시(鶴橋) 지역이며, 카운터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도 구정주자 재일코리안들이다. 이는 도쿄와는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이들 재일코리안들은 기존의 민족단체 경력이나 민족문제 활동 경력이 전무 또는 적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역시 개인 자격으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모여든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도쿄와 공통적이다.

이들의 퍼레이드는 'Osaka Against Racism! 헤이트 스피치가 뭐 말이여! 친하게 지내야지 퍼레이드 in 오사카'라는 명칭으로 7월 14일에 실시되었다. 단체동원 없이 약 800명이 참

38) 国会議事録、『第183回参議院法務委員會第5號』、(平成25(2013)年05月9日)。

39) 위의 의사록. 일본이 유보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권차별철폐조약 제4조 (a), (b)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중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40) 『嫌韓デモを市民が封鎖、日本の良心がコリアタウンを守った=韓国』、『サーチナ』、(2013年7月1日)。http://news.searchina.ne.jp/dispatch.cgi?y=2013&d=0701&f=national_0701_008.shtml (2013년 11월 29일 검색)

41) <http://www.youtube.com/watch?v=YqzwtGj1XuU> (2013년 11월 30일 검색)

가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최 측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또한 상당수가 재일코리안이 차지했다는 점과 비정치성에 대해서는 도쿄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최 측의 비정치성은 주최 측 홈페이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알 수 있다.

참가자 여러분께 참가자들의 다양성에 배려하기 위해 단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정치적 주제나 특정단체에 관한 내용의 깃발, 플랜카드 및 국기 등을 퍼레이드에서 게시할 것을 삼가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⁴²⁾

도쿄에서는 9월 22일에 ‘차별철폐 도쿄대행진 -The March on Tokyo for Freedom’이 추진되었다. 오사카 퍼레이드부터 두 달 이상 시행이 늦어진 것은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진 일본인 중심의 결합체임이기에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재일코리안 중심이며 자신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는 데 전념할 수 있었던 오사카 측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퍼레이드에는 1200-3000명⁴³⁾이 참가함으로써 규모 측면에서도 오사카보다 한층 확장되었다.

한편, 오사카, 도쿄의 공통된 주장은 헤이트구제법 제정 촉구에 있으며, 이는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저촉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과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기존 좌익운동세력과의 갈등이다. 반헤이트운동은 원래 이른바 ‘헤사요(ヘサヨ)’로 불리며 북한 및 총련에 대한 지지성향이 짙은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⁴⁴⁾ 이들은 비정치, 반헤이트라는 목적성 시위를 내건 도쿄대행진 주최 측과 대립해 일본 정부에 의한 북한 제재 반대 등을 내걸었기에 도쿄대행진 당일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도쿄대행진 다음 날에 같은 취지에 행사를 주최했으나, 참가자는 수십명 수준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⁴⁵⁾

2. 새로운 구심체의 탄생

오사카에서는 기존의 구정주자 재일코리안 중심의 활동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쿄에서는 카운터세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도쿄대행진 직전이었던 2013년 9월 20일 그동안의 카운터세력의 새로운 구심체가 탄생했다. 재일외국인에 대한 반차별활동가로 일본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재일코리안 사업가 신숙옥(辛淑玉)의 주창으로 헤이트스피치와 레이시즘을 극복하는 국제네트워크(ヘイトスピーチとレイシズムを乗り越える国際ネットワーク, 이하 노리코에넷)이 무리야마(村山富市) 전 총리와 같은 좌파 정치가부터 스즈키(鈴木邦男)와 같은 우익 논객까지 망라한 총 20명의 공동대표가 중심이 된 반차별 운동체가 결성된 것이다.⁴⁶⁾

42) 행사 개요에 대해서는 <http://osakaagainstracism.wordpress.com> 참조. (2013년 11월 30일 검색)

43) 아사히신문은 1,200명을, 시사통신은 3,000명 규모라고 보도했다. 현장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2,000명 이상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 내용과 동일하다.

44) 중심세력인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는 모임(ヘイトスピーチに反対する会)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 단체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livingtogether.blog91.fc2.com> (2013년 11월 20일 검색)

45) 한 행사 참가자의 증언.

46) 노리코에넷 공동대표 20명의 경력에 대해서는 [のりこえねっと](http://noriiconet.com)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노리코에넷의 특징은 기존 카운터세력의 운동적 성격의 활동과 더불어 조사(레이시즘의 실태파악), 교류(국내외 관련단체들과의 연대, 홈스테이 등의 실시), 계몽(학습회 개최), 홍보(반헤이트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교육(마이널리티 카운슬러/리더 양성)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리코에넷은 앞으로 반헤이트운동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카운터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시바키대는 해산되었고 시바키대를 이끌어온 노마는 주창해 플랜카드대와 오토코조(男組)⁴⁷⁾와 통합하여 새로이 C.R.A.C(Counter-Racist Action Collective)를 결성했다.⁴⁸⁾ 기존의 가두행동을 중심으로 언론헌동, 예술활동, 서명, 로비활동, 이벤트, 학습회 등 그동안의 활동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⁴⁹⁾

도쿄의 두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으로서의 참여가 기본이 되어 있다는 점, 둘째, 넓은 사상의 폭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넓은 활동영역과는 달리 목적은 반헤이트, 반레이시즘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이 같은 특징은 일본사회에 내재되고 혐한시위의 근저에 깔려 있는 헤이트스피치와 레이시즘이 재일코리아인이라는 마이널리티 중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다름으로써 폭넓은 사상과 계층의 시민들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V. 결론: 혐한시위를 통해 보는 재일코리아인의 인권

결론을 대신해 여기서는 혐한시위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재일코리아인의 인권상황이 과연 어떠한 여건에 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재일코리아인의 인권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카운터세력이나 범조인을 비롯한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이들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인식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당국자들의 그것 간에는 현저한 괴리가 존재한다. 어느 쪽에게 보다 타당성이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예시한 헤이트폭력 피라미드⁵⁰⁾가 유효할 것이다. 이 피라미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혐한시위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재일코리아인이 일본사회에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 (또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항목마다 검토해 보면 된다.

피라미드는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피라미드 상부에 있는 마이널리티에 대한 폭력(4단계)이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단계인 '악의 없는' 선입견'으로 인해 사회에 침투되는 것이 바탕이 되어 (2단계) 편견에 의한 구체적 행위들이 자행된다고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제도적 차별이 일어날 수 있으며 (3단계), 이 단계를 넘어

<http://www.norikoenet.org/representative.html> (2013년 12월 3일 검색)

47) 2013년 6월에 결성되었으며, 카운터세력에서 행동부대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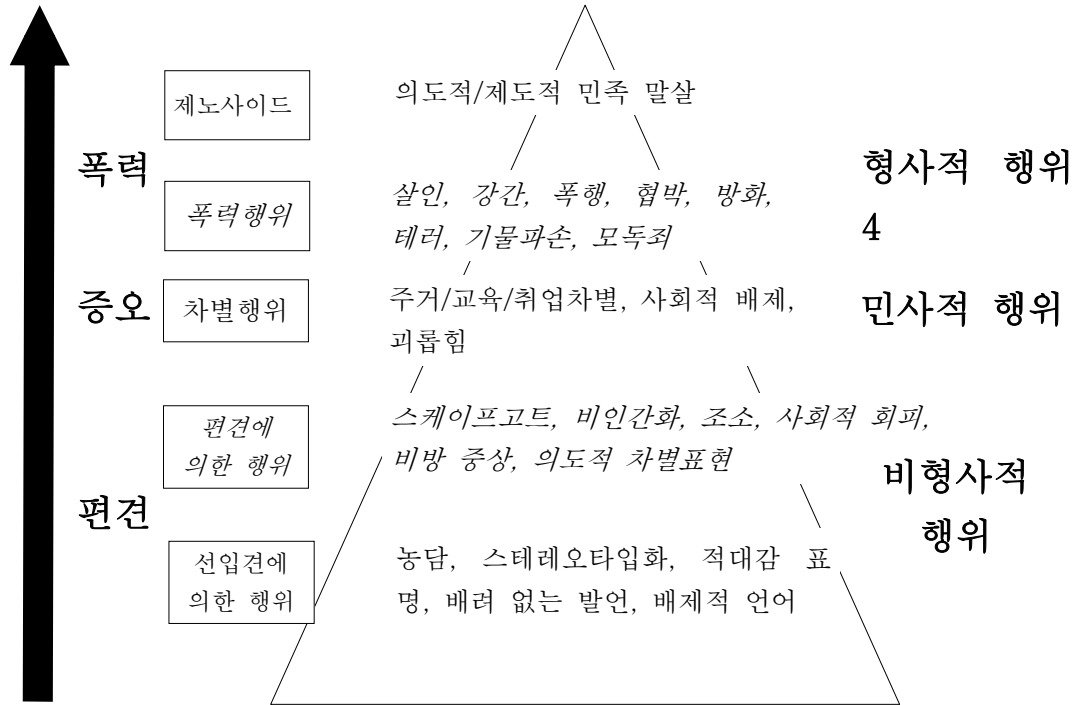
48) C.R.A.C 홈페이지 <http://cracjpn.tumblr.com> (2013년 12월 3일 검색)

49) 「反レイシズムの「しばき隊」が解散しC.R.A.Cが始動」、『アマーバニユース』 (2013년 10월 1일)
<http://yukan-news.ameba.jp/20131001-72> (2013년 12월 3일 검색)

50) Brian Levin, *The Pyramid of Hate*, (CA: Anti-Defamation League and the Survivors of the Shoah Visual History Foundation, 2003), p6.

서게 되면 산발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4단계). 그리고 당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은 결국 사회 전체로 만연하게 될 정도로 확산되어 대량학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5단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헤이트폭력 피라미드



출처: Brian Levin, *The Pyramid of Hate*, (CA: Anti-Defamation League and the Survivors of the Shoah Visual History Foundation, 2003), p.6 내용을 필자가 수정.

이 피라미드를 재일코리안이 현재 처하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1단계에 해당하는 항목들 즉 스테레오타입화, 적대감 표명이나 배제적 언어의 대상이 된다는 등에 대해 오늘날까지 어느 것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세부항목들 (스케이프고트, 비인간화, 조소, 사회적 회피, 비방 중상, 의도적 차별표현) 또한 마찬가지다. 요컨대 해방 후 7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일코리안은 비형사적 행위, 즉 편견의 대상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3단계를 살펴보면 세부항목들 (주거/교육/취업차별, 사회적 배제, 괴롭힘)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재일코리안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에 대한 주거차별을 둘러싼 소송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제기⁵¹⁾되는 등 완전히 극복했다고 단정 짓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⁵²⁾ 즉 사회통념상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51) 강유미 변호사에 대한 주거차별소송을 가리킨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국적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거절당했던 강씨는 집주인과 이 같은 차별을 방지하는 오사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康由美弁護士入居差別裁判を支援する会 웹사이트 참조. <http://homepage2.nifty.com/lala-osaka/0511kangben.htm> (2013년 12월 3일 검색)

52) 재일코리안의 제도적 배제에 관해서는 朴一, 『在日コリアンってなんでんねん?』, (東京: 講談社, 2005) 참조.

여겨지는 재일코리안 차별도 이 피라미드에 비추어 본다면 여전히 엄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협한시위와 헤이트스피치 자행으로 인해 형사적 행위인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4단계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협박과 모독죄는 현재 재일코리안들 가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5단계에 대해서는 오늘날 일본사회와 전세계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학살에 대한 사실인정조차 인식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경찰의 ‘공범적인 관용함’⁵³⁾을 감안할 때, 유사시에 이 악몽을 떠올리는 재일코리안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재일코리안은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지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내 마이너리티로서의 측면에서 재일코리안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봤지만 향후 과제로는 본고의 논의를 전제해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53) 富増四季、「在特會・京都地裁判決に關連する雜感：ヘイト暴力のピラミッドに照らした分析」、法學館憲法研究所、(<http://www.jicl.jp/hitokoto/backnumber/20131104.html> (2013년 12월 1일 검색))